

# 쾌적한 익산 '숲 가꾸기'

### 사업비 7억 투입 · 9월까지 총 470ha 규모 진행 오포 · 여산 · 왕궁면 · 11개 읍면동 대상

익산시가 쾌적한 환경은 물론 수목의 성장을 도와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숲 가꾸기 사업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오는 9월까지 사업비 7억(국비 3.5억 · 도비 1억 · 시비 2.5억)을 투입해 총 470ha 규모를 대상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송림사 일원을 포함해 함라산 천호산, 용화산 등 주요 산림이 위치한 오포 · 여산 · 왕궁면 등 11개 읍면동 지역이 해당된다.

시는 그동안 산불예방 숲 가꾸기 50ha, 공익림 가꾸기 14ha, 어리나무 가꾸기 20ha, 조립지 가꾸기 1차 175ha, 덩굴 제거 25ha를 통한 시행해 왔다.

이어 7월부터 9월까지 조립지 가꾸기 2차 211ha를 실시해 보다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송림사 주변 산림이 안전한 숲 구조로 정비돼 산불 등으로부터 시민 안전성이 확보되며, 장차 우량한 목재를 생산할 수 있어

경제립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저수지 주변 산림에서는 수원 함양 수질정화와 같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증진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숲 가꾸기는 정채 숲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립지나 장기간 가꾸지 않은 숲을 대상으로 생육단계별 숙아 베기·가지치기·조립지 가꾸기 등과 같은 작업으로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건강하게 숲을 키우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주가 숲 가꾸기 사업의 필요성 인지 부족에 따라 사업추진과 산주 동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모두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인 숲 가꾸기에 산주 관심과 사업 참여 등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왼쪽)이 2022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지역 현안을 건의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 군산시장, 국가예산 확보 총력대응

### 기재부 1·2차 심의대응 위한 지역 현안 · 국가예산 적극 건의

강임준 군산시장(왼쪽)이 2022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지역 현안을 건의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강 시장은 29일 안도길 기재부 2차관을 만나서 2022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군산시 주요쟁점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실력과 적극적인 건의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초 기획재정부 방문에 이어 각 부처에서 반영된 국가예산에 대한 1차 심의(6월중) 및 2차 심의(7월중)에 대응하고 미반영 또는 과소 반영된 사업들의 반영 또는 증액을 요청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번 방문을 통해 강조한 중점사업으로는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

랫폼 개발(50억원),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14억원), 군산 선교역사관 건립사업(23억원), 비응항 어항구 확장개발(24억원), 군산항 제2준설도 부가장 건설(50억원) 등이다.

강 시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여전히 국가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 지역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8월 말까지 진행되는 기재부 예산심의에 국가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펼칠 예정이며, 7월 중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 등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방침이다. /군산=한영봉 기자

## 군산시, 제1회 공공주도 해상풍력 시민포럼 개최

### 유튜브채널... 실시간 송출 온라인 사전접수... 시민 참석

군산시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의 지역 내 공감 형성을 위한 제1회 군산시 공공주도 해상풍력 시민포럼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C)에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많은 시민들이 편리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 유튜브 공식채널로 실시간 송출했으며, 해상풍력 전문가와 어민, 산업 관계자, 온라인으로 사전 접수한 시민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강임준 군산시장과 군산시의 회 부의장, 안병국 환경부 전(前)차관

의 축사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해상풍력 전문가의 주제발표, 이장호 군산대학교 풍력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전문가 발제 시간에는 성진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공공 R&D 혁신센터장의 국내외 해상풍력 기술 및 정책, 최우진 CIC(Green Investment Group) 글로벌 녹색에너지 개발 및 투자 전문가의 정부의 해상풍력과 지역발전에 대한 발표와,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원 환경갈등연구단장의 해상풍력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군산형 협력모델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이후 좌장인 이장호 군산대학교 해상풍력연구원장과 이승인 전북테크노

파크 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심명수 군산시수협 어촌계협의회장 이원 군산경찰청 집행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한 종합토론에는 해상풍력 사업의 지역 수용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었다.

또한 온 · 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시민들은 군산의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여러 질의를 쏟아내 군산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포럼에 참여했던 한 시민은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방향과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였으며,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군산의 지역 경제가 다시금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 군산시, 풍요로운 바다만들기 자원조성 박차

군산시는 연안해역의 수산자원 확충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치어 130만 마리를 방류하는 등 풍요로운 바다만들기에 역점을 다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수산종자 방류사업으로 4억 2천만원을 투입해 고군산군도 해역에 넓치 50만 마리, 조피볼락 80만 마리를 지난 25~28일 방류했다.

또 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무상으로 분양받은 주꾸미 15만 마리를 지난 21일 방류했으며 연 내 바지락 500만 마리와 해삼 2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최초 지리표적시단체포장

을 받은 서해안 대표 특산 어종인 '박대'의 명소화를 위해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에 종묘생산을 건의했으며 지난해 국내 최초 인공종자 생산에 성공했다. 또 박대치어를 지난해 8만 마리에 이어 올해에는 10만 마리를 오는 11월에 방류할 계획이다.

최근 감소세가 뚜렷한 봄철 대표 어민소득품종인 주꾸미 자원조성을 위해 '주꾸미 산란장 조성사업'으로 수산자원관리공단 서해지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연도, 비안도 연안에 총 12만8,000개 산란시설물(패류껍질)을 제작 설치해 주꾸미 인입률 등 조사,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효과



분석 후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에 있다. 이와 함께 자원회복을 위한 수산종자 방류와 더불어 무분별한 포획으로 부터 수산자원 보호하기 위해 불법어구 철거행정대집행과 불법어업 지도 단속도 추진하고 있다. /군산=한영봉 기자

## 군산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정책교류회 개최

군산대학교 강소특구육성사업단(단장,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김영철)은 최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2021년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산업육성을 위한 제1차 정책교류회"를 열었다.

이 정책교류회는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 군산시, 특구재단 및 지역 내 연구기관과 지원기관 등 총 18개 기관의 협력을 통해 강소특구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제안함에 목적을 둔다.

군산대학교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김영철 단장은 "강소특구 육성사업은 군산에서는 처음 기보는 길로 이에 관련된 분들이 적극 협력해야만 성공적인 생태계가 조기 조성될 수 있다"며 인사말을 했다.

전라북도 혁신성장정책과 김호덕 팀

장은 "강소특구 지정을 위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전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군산시 산업혁신과 이현숙 계장은 "군산시 펀드를 조성 중"이라면서, "R&D 군산기업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북테크노파크 이승인 단장은 "연구소 후보군 발굴이 매우 중요하고 연구소기업 등록 후 IP연계지원사업(선도, 도약, 글로벌기업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군산국가산단경영자협의회 오수복 회장은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고, 자동차부품협회 신현태 회장은 "기업 간 관련성이 높고 상호 시너지효과가 큰 컨소시엄을 통한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 오포관광지 민간투자 유치 활동 본격화

익산시가 금강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오포관광지를 개발시킬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활동에 나섰다.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관광객과 시민들을 위한 힐링 여행지 조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난 28일 서울시 힐튼 호텔에서 정현을 시장과 유재구 시의회 의장,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투자를 계획 중인 국내 리조트 운운사, 건설사 개발회사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포관광지(3지구) 조성사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투자환경·및현형 기업지원과 관련된 홍보영상 상영,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해 기업의 확실한 투자처로 오포관광지 3지구의 매력을 설명했다. /김재훈 기자

#### 익산시 금마 축구공원 제3구장 조성 속도

익산시가 전문 운동선수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축구공원을 조성한다.

축구 제3구장 조성을 계기로 전지훈련장, 축구 동호회 등의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금마 익산축구공원 제3구장을 조성해 세계문화유산 미륵사지와 연계한 체육·관광벨트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위해 총 87억5천만원이 투입됐으며 금마 축구공원의 6만9천388㎡ 규모 부지에 전지훈련장, 축구 동호회 등의 생활체육 시설이 들어섰다.

축구 제3구장 조성에는 추가 공사비용 25억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위해 지난 23일 전라북도 체육정책과, 전북도 교육청, 한병도 국회의원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가 사업비 확보를 위한 정치권·유관기관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훈 기자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